

# 함평군-군체육회, '야구꿈나무' 키운다



함평군과 함평군체육회가 지역 유

## '함평나비 유소년 야구 스포츠클럽' 창단식 개최 야구에 관심 있는 유소년 회원 26명 확보해 운영

소년 야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함평군은 5일 "함평나비 유소년 야구 스포츠클럽" 창단식이 지난 2일 함평유소년야구장에서 이상의 함평군수, 박종희 함평군 체육회장, 김형모 함평군의회 의장, 김안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창단식은 경과보고, 클럽 후원단체(함평축산업협동조합장, 퍼즐이앤씨) 감사패 전달, 내빈축사, 시구·시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함평나비 유소년 야구 스포츠클럽은 지난 4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진 구성 및 정관을 제정하였으며, 6월 법인설립 완료 후 야구에 관심 있는 유소년 회원 26명을 확보해 클럽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 학교연계형 스포츠 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국민체육진흥기금 8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5년간 지원 받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유소년 야구부 창단으로 지역 꿈나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레슬링, 골프 등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전문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준 기자



## 목포해상W쇼, 코로나19로 일정 조정 오늘부터 이틀간 불꽃쇼 없이 바다분수·해상무대 공연만

목포시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2021 목포해상W쇼'의 일정을 조정했다. 해양관광 공연콘텐츠 개발에 불가피한 시연회는 당초 4일에서 6일로 연기했으며, 시범공연은 목포문학박람회 개막식이 있는 7일 저녁 8시에 첫선을 보인다. 두 공연 모두 불꽃쇼는 생략하고 30분 동안 춤추는 바다분수와 해상무대 공연만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공연 일정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17일까지 잠정 중단된다. 시는 당초 목포문학박람회(10월 7~10일), 목포항구축제(10월 14~17일) 등 행사를 포함해 11월말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에서 목포해상W쇼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목포=박정수 기자

## 영암군, 땅심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벼짚 환원사업(시범사업) 추진

### 올해 사업량 1049ha...ha당 25만원 지원

영암군은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논 지력을 증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벼짚 환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벼짚 환원사업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벼 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필지)이

벼 수확 후 벼짚을 잘게 절단하여 재배 농지에 환원할 경우 이행점검을 거쳐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 사업량은 1,049ha로 ha당 2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관행농업 재배농지, 유기인증취소농지, 벼짚소각 및 미환원 농지,

콘포 사일리지 제조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군은 신청농가가 하위로 사업비를 청구한 경우 지급제한은 물론 3년간 해당사업 참여제한,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 배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므로 농가에서는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암군 관계자는 "지력증진을 위한 벼짚 환원사업은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벼의 생육을 활성화하고 병해충을 방지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벼짚에 의한 양분 공급으로 화학비료의 절감효과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무안군 "남악·오룡신도시에서 공영자전거 저렴하게 즐기세요"

무안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남악·오룡신도시에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까지 공영자전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운전을 거쳐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남도정을 중심으로 대여소 10여 곳이 설치될 예정이며, 공영자

전거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이용객 중심의 대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에도 힘써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영광군, 도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국도비 93억 포함 총사업비 158억 원 확보

영광군은 지난 9월 30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인 총사업비 158억 원(국도비 93억 원) 규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영광 뉴트로(Newtro) 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6일 전라남도 광역선정 종합평가를 거쳐 7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서면·종합발표평가와 실무위원회 거쳤으며, 9월 30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통해 전국 39곳이 최종 선정됐다. 영광군은 지난 2018년, 2019년 2차례나 사업을 신청했지만 고배를 마신 적이 있어 이번 공모 선정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될 도시재생사업(일반근린형)은 주거지·골목상권 혼재 지역에 거점 조



성 등으로 상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1004섬 명품 '신안배' 올해 첫 미국 수출

수출 550톤 15억 소득기대 부터 미국 LA 및 캘리포니아주 등에 수출을 해왔으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매년 200~600톤을 수출하여 배 생산농가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신안군은 수출전략 품목인 배의 얼룩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선별과 최첨단 관리시스템으로 배 얼룩과 방지설비를 지원하여 대외이미지 제고 및 해외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신안=이덕주 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